

## 담 배

“도진이..김도진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거여 잉? 알겠냐, 알겠냐고.. 김도진,김도진!”  
또다시 그 꿈 이었다 나는 그날이후 매일 똑같은 아픔을 꿈을 통해 되새김질 한다.  
오늘은 꼭 털어놓으리라 다짐하며 일어났다. 그 젊은 상담사 에게 나는 모든 것을 나의  
과오와 슬픔, 어리석음, 아픔을 다 털어놓으리라 다짐하며 길을 나섰다.

### 1. 아픔

“김도진씨 안녕하셨어요?” 그의 말이 들려온다. 나라에서 지원해준 상담 센터 상담사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긴... 뭐라고 답해주기를 원하는 것일까. “뭐.. 그냥  
지냈죠 뭐.. 하하” “그... 얘기하실 마음은 조금 생기셨나요?” 생겼다. 아침에 다짐까지 하고  
왔는데. 하지만 나는 두 번째 만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만큼의 넓은 마음을 나는 가  
지고 있지 않나보다. 또한 나의 아픔은 그리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좀 이르네요..” 정적이 흐른다.

“하하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죠? 제가 더 죄송하죠. 그.. 밥은 드셨나요?”

점점 대화가 무의미해짐을 느끼고 있었다. 나의 아픔이라는 문은 상담이라는 열쇠를 거부하고  
있었다.

“예”

또다시 정적이 흐른다. 그 미칠 듯한 침묵을 깬 것은 나였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얘기할 마음이 생기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바보같이! 얘기하리라 다짐했는데도, 아픔을 떨치겠노라 다짐했는데도 나의 입은 몇 십년 전  
부터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그래도 조금만 더 이야기를..”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실망감이 뒤섞여있었다.

“죄송합니다”

죄인인 양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나의 뒷모습을 그 젊은 상담사는 어떻게 보았을까.

아침의 그 다짐은 사라져 버린 채 나는 버스 창가에 몸을 맡겼다.

차창너머로 운전자의 손에서 떨어져나가는 담배 한 개비가 보였다.

차창 작은 틈 사이로 허무하게 떨어지는 그 작디 작은 담배 한 개비는

제 주인이 저를 버린 줄도 모른 채 활활 활활 타고 있었다.

자기 한 몸 불사 지르며 제 몸 타가는 줄도 모르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불씨를 넓디넓은 도로 한가운데에서 불사 지르고 있었다.

곧이어 달려오는 차바퀴에 그 한 개비가 깔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꺼졌으리라 분명 꺼졌으리라 하지만 그 작디 작고 불품없는 담배 한 개비는 심하게 다치고

아파하는 순간에도 불씨를 꺼뜨리지 못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80년 5월의 그들을 떠올리고  
말았다.

## 2. 김도진

“...진이...도진이... 김도진! 뭘 생각을 그리하나 잉?”

‘찰칵’ 라이터 뚜껑을 여닫으며 용은이가 말했다.

“아니... 니가 한 말이 진짜일 리가 없잖나? 시위가 계속 심해진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라에서 범죄자들도 아니고 무고한 국민을 죽이냐는 말이야.”

“아따매 서울서 왔다고 유식 한 거 티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지방 이걸 내가 믿을 만한 곳에서 들은 거여 두고 봐 우리 삼촌이 계란령? 인가가 내려지고 전국에서 피바람 불수도 있다고 했다니께” 서울에서 아버지의 직장사정으로 지방으로 내려온 나에게 용은이라는 친구는 소중한 친구였다. “유식한 티내려는 게 아니고...”

“아따 지방 우리 삼촌이 기자여 기자 너 지방 거짓말이라고 하든 내 삼촌을 욕하는 거여 알어?”

용은이는 자신의 삼촌이 기자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다 오죽하면 자신의 삼촌이 준 라이터를 자신의 분신마냥 소중하게 다뤘다. 그런 용은이는 틈만 나면 삼촌의 취재 내용에 대해 떠들곤 하였다. “그래 니 삼촌이 취재하시고 추측 하신건 맞겠지 근데 추측일 뿐이잖아?” “이 자식 이거 안 믿는 고만? 쪼매만 기다려 봐라 곧 있으면 신문 1면에 삼촌이 말한 내용이 대문짝하게 실릴 거니께 잉?”

하지만 다음날도 그다음날도 신문에는 용은이의 삼촌의 기사는 실리지 않았다. 볼 때마다 기세등등하던 용은이는 날이 갈수록 기운이 없어보였다. 나는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으려했지만 용은이는 나를 볼 때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여 좀만 기다려 봐라잉” 이러며 조급해하는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했다. “자자. 자리에 앉아. 수업시작하기 전에 전달사항이 있다 요새 시위니 뭐니 하면서 시끄러운 소문 들리는데, 너네 그러면 빨갱이 새x들 되는 거야 알겠냐? 하라는 공부는 안하구...쫓. 흑여나 호기심에 근처라도 가면 잡혀간다니까, 허튼 맘먹을 생각일랑 집어 치우고 공부나 해라. 알겠냐.” 담임선생님의 그날의 아침종례를 진지하게 들었던 사람은 아마 용은이, 용은이 밖에는 없었을 것이었다.

나조차도 용은이의 삼촌이 잘못 아셨거나 용은이가 거짓말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솔직히 말해 단순 추측일 뿐인 삼촌의 말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마치 살인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용은이가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 곧이어 종례시간 종이 치고 용은이는 나를 불렀다 “도진아... 뭔가 잘못 된거여.. 이게 아니여.. 우리삼촌이 시위하는 아들은 빨갱이가 아니라 했단 말이어..” ‘찰칵’ 라이터를 만지작 대며 용은이가 말했다.

“후... 무슨 소리야! 너 그런 말 함부로 했다가 잡혀가. 이제 나라에서 시민들 때려 죽인다 뭐 이런말 하지 말라고! 나까지 정신 사나워 진단 말이어..”

만약 내가 그때 용은이의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줬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너네 그게 뭘 소리야 나라에서 누굴 죽여?” 담임선생님 이었다.

“이 새x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어디서 쓰레기 같은 소문 주워들어 와가지고는 학교에서 떠벌리고 다녀? 너네 둘 다 따라와”

나는 그때 속으로 억울한 마음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히려 말렸는데, 왜 내가 맞아야하는가, 그때 “싫습니다” 나의 마음의 소리가 튀어 나온 줄 알고 나는 매우 놀랐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용은이었다.

“뭐 이 새x야?”

“제가 왜 맞아야 합니까? 예? 저는 우리 삼촌이 말해주거 그거 하나 말 한거 뿐인데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김도진이 넌 교실 들어가 있어” 내가 몸을 교실 문 쪽으로 돌리자마자 나의 귀속으로 들어온 것은 용은이의 뺨맞는 소리였다. “하 씨발 내가 이 라이터 들고 다니지 말라고 안했었냐? 선생 보기를 아주그냥 x같이 알지? 이리 내, 어쭙 안내? 이 새x 봐라. 안내? 안내?”

무차별적으로 맞고 있는 용은을 나는 그저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눈이 아닌 귀로만 폭력을 듣고, 입으로는 침묵을 지킨 채,

손으로는 딱딱하고 차가운 교실 문을 열어젖혔다.

그 순간 그 딱딱하고 차가운 교실 문틈으로 반장인 건우가 나와서는 선생님을 말리기 시작했다. 진정하시라는 말과 함께 용은이를 감싸고 선생님의 거친 손을 막았다. 하교시간의 시끄러움은 사라지고 복도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교실의 많은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창문에 달라 붙은 채로 제자가 선생을 막는 진귀한 장면을 훑칠세라 구경하고 있었다.

닫힌 나의 눈은 커졌고 나의 손은 멈춰졌다.

“너 이 자식.. 감히 선생이 훈계하는데 말려? 너도 쳐 맞고 싶은 거지 그지? 어?”조금 있다가 건우는 구십도로 허리를 구부린 채로 선생님께 사과하며,

“훈계와 징벌을 선생님께서 주시는 것은 마땅하나,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의 얼굴은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다.

거뭇한 얼굴이 시뻘개 지니 마치 선지국에 둥둥 떠다니는 선지를 닮았었다.

선생님은 그 얼굴을 한 채 턱밑까지 올라온 욕을 꾸역꾸역 참고는

“그래 니 말이 맞구나. 선생님이 생각이 짧았네. 하하.. 그럼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마저 얘기 하자꾸나 용은아”

웃음소리를 내긴 했지만, 선생님의 얼굴은 전혀 웃고 있지를 않았다. 획 하고 돌아서 복도에 있는 쓰레기를 보고는 애꿎은 아이에게 치우라고 소리치는 모습은

우스꽝스럽다 못해 안쓰러웠다.

얼마나 약이 오를까. 건우는 교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건우의 부모님이 학교에 낸 돈이 어마어마 했다. 지금은 상상도할 수 없지만 그때는 그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때였다.

교장은 모든 선생님들에게 건우에 대해 신신당부했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선생님의 이쁨을 받는 건우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용은아 괜찮아?” 건우의 손을 용은이는 뿌리치며 괜찮다고 말했다.

용은이는 곧이어 말도 없이 자리를 뜨더니 다음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 3. 발화

“도진아 용은이 집 알지? 혹시 한번 찾아가볼래?”

걱정이 된 것은 사실이었다. 매일 매일 밝게만 다녔으니까. 용은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적잖은 충격 이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용은이가 그렇게 가서 나도 사과하고 싶기도 하고..”

“고마워 그럼 이따가 교실에서 기다릴게”

용은이를 만나다면 나는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사과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애초에 내가 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평소에는 길고 길게만 느껴지던 수업들이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다.

“반장 가자”

‘그래, 얼굴을 비추고 미안하다고 사과 하는 거야. 다시 잘 지낼수 있어 그럼’

틈만 나면 가서 놀던 용은이의 집에 가는 발걸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었다. 속으로 할말들을 되 뇌이고 되 뇌이며 도착한 용은이의 집에는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가 없었다. 교실문 보다 더욱 차가운 대문을 두드리며 용은이를 불러보아도 용은이는 커녕 용은이의 가족들조차 볼 수 없었다.

“그..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어디 나간 것 일수도 있으니까 하하..”

건우도 적잖게 당황한 눈치였다.

“그래 그러자” 하지만 한 시간이 지나도, 두 시간이 지나도, 용은이를 만날 수는 없었다. 해가지기 시작하자 반장과 나는 내일 다시 올 것을 약속하며, 각자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벌써 어둑어둑해진 나의 집문 앞에는 사람형체하나가 서 있었다. 놀람과 두려움, 다시 한번의 놀람 순으로 나의 감정이 요동쳤다. 저기 서있는 형체는 다름 아닌 용은이였던 것이다.

“용..용은아!” 그 순간 돌아본 용은이의 얼굴은 도저히 하루 만에 바뀔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눈은 울었는지, 맞았는지 부어있고,

헬쓱해진 얼굴에는 폭 패인 두 눈덩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도진아 내가 학교 안가 가꼬 마니 놀랬냐 이? 삼촌이 실종이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도진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내 하는 말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이?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여 알겠냐?” 손에는 여전히 라이터를 쥐고 있었지만 용은이는 더 이상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멍할 뿐이었다. 예상치 못한 용은이와의 만남 때문이었을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은이의 말 때문이었을까? 무언가에 쫓기듯 사라지는 용은이를 나는 한마디 말도 없이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학교에서는 용은이에 대한 온갖 소문들이 돌아다녔다. 건우도 용은이가 걱정되었는지 나에게 다시 한 번 가보자고 말을 했지만,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용은이의 집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

“자자 조용히 하고 지난번 진도 어디까지...”

그 순간 ‘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모두가 수업중이라는 것을 까먹기라도 한 듯 창밖의 상황에 모두의 신경이 쏠렸다.

“어디서 난거여?” “저기는 광장 쪽 인디..” “또 시위하는 건가?”

“비명소리는 뭐야?” “그 소문이 맞나 벼. 군인들이 사람들 패고 다닌 다는 거”

“조용조용! 소란 떨지 말고 제자리로 가고 책이나 펴! 에이, 부모들이 피 땀 흘려 번 돈으로 저러고 다니는 것만큼 불효가 없다! 알아?”

맞았다. 시위는 개뿔 우리는 공부나 해야 했다. 하지만 용은이의 그 말은 대체 무엇이이었을까. 학교가 끝나고 나는 혼자 용은이의 집에 다시 가 보았다. 인기척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달라진 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은 열려있고 용은이의 집안은 도둑이라도 든 마냥 험잡어져있었다. 도둑, 용은이네 가족이 지방에 내려간 틈에 도둑이 들었구나.

“도둑이야!! 도둑..” 나는 순간 나의 두 눈을 의심했다. 용은이의 집을 뒤지고 있던 것은 군복

을 입은 군인 들이었다.

“누구나? 잉? 잠깐, 너 여기서사는 새x들 조금이라도 아냐? 아냐고 묻잖아? 이 새x야!”

두 명의 군인 중 한명이 나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도망쳐야한다. 살려면 도망쳐야한다. 어디로 가든지도 모른 채, 나는 나의 두발이 이끄는 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해서는 혹여나 쫓아올까 두려웠다. 다음날 나는 차마 학교로 갈 수 없었다. 타지에 계신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 드릴 수 는 없는 노릇 이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거리를 나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거리를 배회하는 나의 앞에는 분명 5시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최루탄 냄새가 뻥 옷을 입은 시위대가 나타났다. 나는 그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5월 18일 오전 5시 휴교령을 받은 대학생들과 그보다는 나이를 조금 더 먹은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용은이의 얼굴을 봐버렸다.

용은이와 나는 한 동안 서로의 눈에서 눈을 떼 수 없었다. 마치 시간이 얼어붙은 듯 했다. 며칠 전 봐버린 용은이의 얼굴보다 더욱 험쭉 해짐을 느낄 수 있었지만, 더 마른 체구를 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용은이었다. 그는 며칠사이에 우리가 우스게 소리로 지껄이던 그 빨갱이가 되어있었다. 얼어붙은 시간을 깬 것은 최루탄 이었다. ‘펑’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나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 4. 두려움

어쩌다 보니 오게 된 학교정문 앞에는 군용 차량이 세워져있었다. 순간 좋지 않은 예감이 내게 엄습해오기 시작했다. 나의 교복을 봤으리라. 나의 학교를 알았으리라. 나의 얼굴도 알고, 이제는 나의 주소, 연락처, 가족까지 그 무서운 눈빛의 군인들이 나를 알았으리라.

나는 또다시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용은이를 다시 보게 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옷차림을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물어볼 것이 산더미였다.

놓치고 싶지 않아 나는 용은이를 뒤 따라 갔다. “용은아!” 헉헉 대는 숨을 몰아 내쉬며 용은이는 그렇게 또다시 나와 눈을 맞추었다.

“김도진... 학교는 어쩌고 여그 와있냐? 학교는 어쩌고?”

애써 태연해 보이려고 안부를 묻는 용은이는 왠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여전히 라이터를 쥐고 있는 그의 손은 이미 떨림이 멈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용은아 이게 어떻게 된거야! 어? 그 옷차림은 뭐구? 또 니 집은, 니 집은 왜 군인들이 뒤지고 있냐는 말이야?”

“그게 뭘 소리여? 우리 집이 뭐! 왜 군바리 새x들이 우리 집을 뒤지는데? 엄니는? 동생은?” 안부를 물을 때와는 사뭇 다른 흥분된 목소리로 용은이는 말했다.

“어머니? 동생? 그건 뭘 소리야? 지방 내려갔다고 했잖아 아니었어?”

“안된다.. 안돼..” 용은이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기 기록은 항상 내가 빨랐는데 이번만큼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용은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용은이와 다시 도착한 곳은 여전히 엉망진창이었다.

대문은 다 부서져 있었고, 집안에는 남아있는 물건 중에 성한 게 하나 없었다. 물론 용은이의 어머니와 동생도 집에는 없었다.

“엄니!! 용진아!! 어딴 거여.. 엄니..!”

“용은이..용은이나?”

그 순간 무너진 철문 너머로 용은이의 어머니와 동생이 용은이를 불렀다.

“엄니 깜짝 놀랐 잤여.. 어떻게 된 거여 어?”

용은이는 안도에 찬 눈빛으로 열린 집밖으로 뛰어나가 가족들을 끌어안았다.

상황은 이러했다. 삼촌이 실종되고 얼마 안가, 낯선 전화들과 용은이네 가족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용은이는 집에서 아무도 없는 척을 하며 시위대의 본진에서 가족과 지내기 위해 때를 살피던 와중, 하필 용은이가 집을 비운 때에 군인들이 찾아와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깜짝놀란 용은이의 어머니와 동생은 장롱에 숨었고, 집안을 뒤지던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장롱문을 열어젖히려던 순간, 나의 고함소리로 인해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떠나가자 용은이의 어머니는 동생을 데리고는 이웃집에 지금까지 몸을 숨기고 계셨던 것이다.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도 나는 이해가 잘 되질 않았다. 고작 기자인 삼촌을 두었다는 이유로 군인들이 집안을 박살내고 가족을 흠어지게 하는지, 고등학생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 것인지, 나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용은이와 가족을 흔히 본진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데려다 주었다.

“내 걱정일랑 하지 말구 잘 가라!” 억지로 지어보는 용은이의 미소에는 안도나 편안함은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래.. 그 시위는 안하면 안 되는 거냐?” 나의 말이 끝난 순간 용은이의 라이터뚜껑이 찰칵 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

한동안의 침묵이 이어졌다.

“어, 안 될 것 같어.... 도진아 우리는 말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여 알겠냐?”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저러는 것일까.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일까? 그런 일들을 겪고도? 그날 밤 나는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아마 용은이도 잠에 들지 못했을 것이다.

황황황! “아무도 안계세요?” 황황황! “도진아! 나 건우야, 건우 문 좀 열어줘”

언제 잠들었는지 나는 건우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열어젖힌 나의 집문 앞에는 건우가 서있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 학교를 안 왔길래.. 오늘은 학교 가나보네? 잘됐다 같이 가자”

“저기 반장.. 나 오늘도 학교 못 갈 것 같아. 미안 선생님한테 잘 좀 말해줘”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보다 너 부모님한테 말씀은 드린 거야? 부모님 걱정하시잖아 무슨 일인데 그래 어?”

“어차피 부모님은 멀리 사셔서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려도 돼. 지금은 일단 아무 말 말아줬으면 좋겠어.”

어색한 공기 속에서 나와 반장은 한동안 침묵을 유지했다 .

“알았어 내일은 학교 오는 거지? 그렇게 알고 있을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힘 내구.. 그럼 나 먼저 갈게”

나는 또다시 멀어지는 친구의 뒷모습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나의 눈에 아주 비싸 보이는, 후줄근한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만년필이 들어왔다.

아마 건우가 흘리고 간 것이리라. 나는 잽싸게 집어 들고는, 건우를 뒤쫓아 갔다 분명 멀리서 못 갔을 텐데.. 건우가 보이지를 않았다.

“하... 난감하네.. 이렇게 되면 내일 학교로 가서 돌려줘야 하잖아..”

그때 저 멀리서 무언가가 타는 듯 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파출소 방향이었다.

## 5. 담배

이미 그곳 주변 땅은 시위대의 발로, 공기는 시위대의 소리로 가득 찬 상태였다.

시위대가 방화를 저질렀으리라. 양측간의 긴장상태는 최고치를 달한 듯 했다.

나는 그저 처음 본 순간에 얼떨떨하며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용은, 용은이를 찾아야 했다.

나의 머릿속에는 온통 용은이 생각 밖에는 나질 않았다.

분명 저 사이에 있을 텐데 사람들의 시위소리와 비명소리, 고함소리로 섞인 아수라장에서

나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용은이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최루탄 연기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분명 여기 있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연기 속을 헤맬수록, 용은이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점점 용은이의 마지막 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용은아! 용은아! 콜록콜록 어딴어! 용은아! 콜록콜록”

최루탄연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기침을 삼키고 삼켜가며 용은이를 불렀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제하라! 해제하라!’

최루탄의 연기와 시위대의 구호는 용은이와 나사이의

벽이라도 되는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연기가 사그라들 즈음 저 멀리 어디선가 많이 본듯한

실루엣이 보였다. 용은이, 용은이었다. 하지만 그때 난 그 형체가 용은이가 아닌 줄만 알았다.

용은이는 자신의 라이터로 무언가에 불을 붙여 던지고 있었다.

‘내 첫 담배 물기 전까진 절대 불을 안킬거다’ 라고 말했던 용은이었다.

그런 용은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다른 것들을 태우는 중이었다.

“용은아 용은아! 김용은! 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가야돼 이건 아니야, 우리는 지금 가야돼”

용은이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지만 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내가 먹살을 잡으며 가야한다고 말하는 탓에 용은이의 라이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야 너 임마. 어머니 생각도 해야지. 동생도 있고 여기서 뭘 헛짓거리야 어?”

그 순간 바뀐 용은이의 차가운 눈빛은 난생 처음 보는 눈빛이었다.

“헛짓거리? 니 눈에는 이게 헛짓거리로 보이냐? 어? 우리 삼촌이 헛짓거리 하다 돌아 가셨냐고. 어? 니가 뭘 아는데. 니가 뭘 아냐고.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하냐고 어?”

용은이의 두 눈에는 어느 샌가 눈물이 맺혀있었다.

“삼촌이 그랬다. 이번에 얻은 게 얼마나 중한지 아냐고, 이거 뺏기 머는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당신은 죽어서라도 지킬 거라고, 근디, 이게 헛짓거리라고?”

너도 안할 거면 방해나 말어. 나는 이거 꼭 해야 된다. 내가 안하면 안된다. 안된다고!”

“니가 희생하는건 누가 알아주는데? 니 삼촌 개죽음 당한 건 누가 알아 주냐고 이러다가 다 개죽음 당하면 뭘 소용이냐고! 어? 정신 차려 너 이러는 거 아니야. 지켜야 된다고? 그걸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아직 학생이다 어? 아직 어리다고! 우리가 왜 움직여야 되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탕! ’

시위소리와 고함소리 비명소리가 그 짧은 총성 하나로 조용해 졌다.

“개xx들... 개xx들아!” 그 침묵을 깬 것은 시위대 속 한 청년이었다.

곧이어 상황파악이 분명해졌다 소년이 쓰러졌고 가슴에는 총알이 꿰뚫고 들어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저 시xx들.. 개xx들..”

용은의 손은 아니 온 몸은 분노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

“도진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여..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여야 한다고”

아직 조금 남아있는 최루탄 때문인지 파출소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인지

용은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사나이라면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는 용은이가, 학교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웃고 있던

용은이가, 울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용은이가 간다. 나는 또다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가지마! 니가 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였잖아. 안 그래? 너무 위험해. 이건 아니야.

물론 움직여야 하고, 말해야하지만, 이건 아니야. 목숨이 걸린 거잖아. 가지마! 용은아

가지마!”

용은이는 나의 말을 듣지 못했다.

이미 분노로 인해 귀가 막힌 것일까. 분노로 인해 머리가 이상해진 것일까.

나의 말에는 대꾸조차하지 않은 채 이상한 말을 했다 .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첫 담배 피기 전까지 불 안 피우겠다고 한 거, 기억나지?

나는.. 난 그 약속 지켰다. 이게 내 첫 담배여. 나한테 있어서는 이게 첫 담배라고.

도진이.. 김도진이, 나는.. 난 가야만 된다잉..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난.. 움직여야만 돼”

나는 용은이의 팔을 다시 잡을 수 없었다. 나는 구호를 외치며 달려가는 용은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아니다, 너를 보낼 수는 없었다.

이미 최루탄 연기와 울려 퍼지는 구호소리 속으로 사라진 용은이를 나는 따라 나섰다.

움직일 것이다. 나도 불을 붙이리라 진짜 담배가 아닌 우리라는 담배에 불을 붙이리라.

용은이는 어느새 시위대 전방에서서 구호를 주도 하고 있었다.

“죄 없는 시민 살려 내라! 살려 내라!”

구호는 바뀌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강건하고 당찼다. 나도 어느 샌가 용은이의 주도하에 구

호를 따라하고 있었다. 최루탄의 남은 연기 때문이었을까, 파출소에서 나온 매연 때문이었을

까, 나의 두 뺨에도 뜨거운 눈물 방울들이 뺨에 묻은 최루탄가루들을 씻어 내려가고 있었다.

얼마나 했을까. 해는 지고 어두워졌지만 사람들은 어느 샌가 더욱더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구호의 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시위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져 갔다. 주변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와 둔탁한 둔기의 소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나는 구호를 불러댔다.

그날 밤, 우리라는 이름의 담배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시위가 거세짐에 따라 진압 또한 거세졌다.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목소리를 키웠다.

‘평’ 최루탄연기가 나의 눈앞을 가로 막았다. 콜록거리며 연신 기침을 내뿜던 나는 내 앞에

기침을 하지도, 허리를 숙이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 형체하나가 서있음을 깨달았다.

군인이었다. 방독면을 쓰고 있었지만 희미하게나마 얼굴을 알아볼 수는 있었다.

안경을 쓰고 곤봉을 든 손은 심하게 떨리어왔지만,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곤봉을 들어 올리

고 나의 머리를 가격했다. 내가 진짜 맞은 것인가? 얼떨떨하기도 하고 죽을 지도 모른다는 두

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다.

## 6. 건우

시위고 뭐고 담배니 뭐니 하는 것들은 전부 머릿속에서 지워져 갔다. 달린다. 또다시 나는 비



겁하게 나 혼자 달리는 중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나는 골목길에 멈춰 서서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걸까?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고요했다.

용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해서 외치고 있을까? 그때 나는 발자국소리에 거칠게 내쉬던 숨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발자국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건우였다 나는 좁디좁은 골목길 틈에서 혼자 걸어가는 건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반가웠다 긴장이 풀리고 나는 건우를 부르려했다.

“건우...” 건우 뒤에는 건우 말고도 다른 사람의 형체가 둘이나 더 있었다. 그 형체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중 한 형체는 안경을 쓰고 군봉을 들고 있었다. 나머지 한 형체는 담배를 태우며 연기를 연신 내뿜고 있었다.

“박건우 맞니?” 그들이 건우를 알고 있었다.

“네... 누구세요?”

공포에 휩싸인 건우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머릿속으로는 나가서 건우를 도와줘야 마땅했지만, 나의 몸은 이미 공포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김용은 알지?” 심장이 철렁 하고 내려앉았다.

용은이를 찾고 있었다. 그 군인이 용은이와 건우를 알고 있다. 저 군인. 저 군인은 용은이의 집에서 나온 그 군인이었다. 나의 얼굴을 아는 군인이었다. 도와줘야하는데, 도와줘야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같은반 이에요.. 근데 용은이는 왜..”

안된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근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퍽! 퍽! 퍽!’

시위 때 들었던 둔기소리보다 작았지만 그때만큼은 어떤 소리보다도 큰 소리가 내 귓구멍을 때려갈졌다

“빨갱이 새x, 그 새x 어딴어 어? 너도 시발 한패잖아 아냐? 어딴냐고... 말안해?!”

순식간에 벌어졌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몰라요..몰라요....살려주세요..”맞는 순간순간을 나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야 김상준이..”

폭행을 멈추고 안경을 쓴 군인을 부른다.

“이병.. 김상준..” 여전히 덜덜 떨고 있었다 군복만 아니었다면 동네에서 마주칠법한 친근한 인상을 가진 그가 피가 똑똑 떨어지는 군화의 주인에게 굴복하고 있었다.

“빨갱이 새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었지?”

시커먼 담배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져 갔다.

“....”

“어쭙 대답 안하지? 이 새x야 너도 내가 만만하냐? 어? 시x 대답하라고 이 새x야”

“..한다고..”

“뭐? 크게 말안하지”

“패..패야한다고 그러셨습니다..”

“맞어.. 맞지 맞아. 패야 돼. 빨갱이새끼들은 매가 약이거든. 이제부터 니가 패봐. 빨갱이새x들 교육좀 시켜보라고. 니가 빨갱이 새x가 아닌 걸 증명하라고”

나는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다, 군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학생 옆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나의 속은 분노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분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약하게 앉아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나는 무기력했고, 저들은 두려웠다.  
안경 쓴 군인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조금의 양심의 가책? 자신이 여태껏 생각하지 않았던 도덕성? 뭐가 됐든 잠깐의 고민이었다. 그랬다. 잠깐이었다. 그는 나의 친구를 때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날 욕할 수 있다. 나를 비난할 수 있다. 그랬다. 난 친구가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 군인의 담배에서 거의 타들어가 검게 변한 재들이 땅에 떨어져 부서졌다. 절규한번 못해보고 담뱃재는 땅에 떨어져 부서져버렸다.  
영화 속 주인공이나 할 법한 대사를 외치며 친구를 구한다는 것은 영화 속에서만 일어날 뿐이었다. 나는 그저 지켜만 봤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난 눈을 떼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군인들은 나의 친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자리를 떠났음에도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살 가치가 없었다. 한참 뒤에야 나는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  
어두웠음에도 볼 수 있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내렸다.  
건우가 놓고 간 만년필을 손에 꼭 쥐 채 나는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시신을 학교 뒤편에 옮기고, 얼굴을 덮어주는 일 밖에는 없었다. 나는 건우 옆을 밤새 지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다. 선생이든 친구든 간에 도움이 필요했다. 누군가가 발견하길 바라며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믿을만한 선생님을 기다리고 그 선생님에게 시신을 맡겨야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선생은 커녕 학생그림자도 볼 수가 없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학교에서 처음 본 사람은 교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닌 학교 건물에서 나오는 선생님이었다.  
지칠 대로 지친 나는 선생님을 불렀다. 선생님은 건우의 시신을 보시고는 털썩 주저앉으셨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그 때의 나는 선생님이 단순히 죄책감 때문에 그런 줄만 알았다.  
건우가 용은이와 제일 친하다고 군인에게 알려준 것이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원망했다. 어쩌면 나는 그때 원망의 화살을 돌릴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진짜 원망 받을 사람은 나 자신과 계엄군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원망할 사람이 필요했다.  
곧이어, 나는 선생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렸다. 두려웠으니까, 약하니까, 아무것도 못한 것은 당연하다는 자기 합리화와 함께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선생님을 뒤로 한 채, 교문 밖을 나가 용은이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섰다. 모든 일의 원인은 용은이 하나로 족했다.  
용은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군인이 집을 찾아갈 일이 없었을 거고,  
그랬다면 내 교복을 못 봤을 거고, 그랬다면 선생님의 증언도 못 들었을 거구...  
어느 샌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최루탄 연기도 매연도 없는데 눈물이 흘렀다.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일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린애처럼 광광 울었다.  
다시금 시위대의 구호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는 거짓말처럼 용은이가 있었다.  
두 눈이 툭툭 부은 채로 찌쩍 갈라진 쉰 목소리로 구호를 내지르는 중 이었다.  
“용은아 죽었어..”  
용은이는 또다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건우가 죽었다고.. 우리 때문에 건우가 개죽음 당했다고 이 새x야..”

용은은 계속해서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건우가 죽었다고.. 그런데도 이 짓거리를 하고 싶어? 말해봐.. 말해!”

용은이는 내 두 눈을 어느 샌가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용은의 두뺨 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니까 더 해야지 그러니까! 더! 해야지! 건우 가가..개죽음 당한 거 아니까 더 움직여야 된다고. 우리 가족 개죽음 당한 거 아니까. 더 움직여야 험다고.. 본진.. 거기 엄니랑 동생 다 있는 거기..! 그 새x들이 뭘 짓거리한지나 아냐? 이? 뭘 짓거리 한지 두 눈으로 봤냐고!

내가 뭘 심정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지 아냐고! 우리가족, 건우 개죽음 안 만들라고

이러는 거 니가 아냐고 어?”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라이터가 쥐어져 있지 않았다.

“이미 뒤졌는데 뭘 소리야 그게 개죽음 아니면 뭘데, 뭘냐고 어? 개죽음 안 만드는거? x랄하지마. 너 그냥그거 니 신념 굶히기 싫은거잖아. 안그래? 안그러냐고!”

“근데 이새x가 말이면 다냐? 똥린입 이라고 함부러 말해도 되냐고 어?”

“용은아. 난 모르겠다. 진짜 나는 다 모르겠어. 근데, 근데 난 개죽음 당하긴 싫다. 진짜.. 나 보고 겁쟁이라고 해도 되는데, 나는 죽기 싫다. 죽기 싫어... 나 살고 싶어.

미안하다... 난 가야 겠어”

“...”

용은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난 갈게 용은아 미안해”

용은이는 다시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나는 또다시 도망쳐야했다

난 나약했다. 난 그 무엇도 아닌 그저 약한 소년이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용은이를 본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년, 내가 기억하는 용은이는 그런 아이였다.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도, 자신의 몸이 재가 되어 부서져도, 자신의 몸이 연기가 되어 흩어져 버려도, 그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끝까지 타들어 가, 그들에게 조금의 화상이라도 입힐 수 있다면 그들은 그걸로 됐다.

그랬다.

그들은 담배였다.

## 7. 김상준

차를 타고 상담을 받으러 갔다. 확실히 상담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았다.

젊었을 적 겪은 나의 마음의 상처가 그와 대화를 하면 조금씩 치유됨이 느껴진다.

담배에 불을 붙인다. 화를 하고 담배가 지모를 태운다.

나를 위해 지모를 태워 나를 만족시킨다.

그랬다. 80년 5월 그들은 담배였고,

지금도 자신이 담배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난 아니다 누군가가 불을 붙여주어야 타는 담배는 계엄군의 나 때로 충분했다.

지금의 나는 담배같이 누군가 불을 붙여주어야 타는 수동적 삶이 아닌, 내가 직접 담배를 고르고, 담배를 태우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젊은 날의 과오는 상담을 통해 깨끗이 잊을 것이다.

아니지,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죄란 말인가.

나는 나의 가족과 아이에게 떳떳하다.

어느새 담배가 다 타버렸다. 나는 차창틈새로 희미한 불씨만을 가진 담배를 떨군 채, 출발했다.

## 8. 재회

“그쵸... 가끔 꿈에 나오기도 합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뉘우치고 다시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시니 까요. 최대한 빨리 치유 되실 겁니다. 항상 힘 내시구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너무 죄책감을 가지진 마세요. 아, 제가 곧 다른 분 상담이라서요.. 또 언제가 괜찮으신가요?”

“아.. 전 내일도 됩니다. 상담사분과 함께하니 정말 좋습니다. 내일이 벌써 기대되네요. 하하, 그럼 전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옹 안녕히 가시구 내일 뵈 겠요”

그렇게 일어난 상준은 문을 열었고, 그 문 앞에는 담배 한 개비가 서있었다.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도진의 기억 한편에는 상준이라는 재떨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이라는 담배를 꺼뜨리는 담뱃재, 정확하진 않았지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하하, 그럼 이만”

상준은 도진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이라는 담배는 기억할 지라도

‘도진’이라는 담배는 기억하지 못했다.

상준에게 도진은 그저 담배 갑에 들어있는 수많은 담배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뭐야 별 이상한 놈이 다 꼬이네 근데 진짜 어디서 봤지?’ 상준은 아마 평생 도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도진씨?”

“네,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천천히 말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담배요..”

“예?”

“담배 말입니다.... 그들은 담배였습니다... 이 만년필의 주인도, 용은이라는 놈도, 다 담배였습니다. 근데... 근데.. 전 아니었어요.. 전 아니었습니다... 전 아니었어요...”

최루탄의 연기도 매연도 없었지만, 상담소 안에서 도진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